

“유품이라도 건네야 할텐데...” 끝내 허탈

세월호 참사

실종자·유실물 찾는 어선 본보 기자 동승 취재해 보니

망원경도 없어 육안 수색 “쉴 틈 없다” 어민들 김밥 점심 온종일 바다위 살살이 뒤져

“배 돌려! 돌리라고! 저기 구멍조끼, 주황색 구멍조끼 같은 게 떠있는데...”

벋머리에 있던 장형훈(38)씨의 긴박한 외침에 김 채취 어선 대명 7호(5.67급·선장 용정완씨)가 재빨리 속도를 줄였다. 어민 4명과 기자를 태운 배는 5노트(시속 9.26km)로 세월호 침몰 해역 인근 독거도 앞 해상을 지나고 있었다. 수심m를 되돌려 주황색 부유물에 바짝 배를 들이대고, 갈고리 달린 장대로 깎집어 올리려던 찰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런, 비닐 이잖아. 주황색 비닐포대...”라며 아쉬움의 탄식이 나왔다.

최근 거친 날씨 탓에 세월호가 침몰한 지 28일째가 되는 13일 새벽까지도 실종



세월호 침몰 사고 28일째인 13일 실종자·유실물을 찾는 어민들이 독거도 앞 해상 등에 대한 수색에 나서고 있다. /진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자 명단에는 29명이 남아 있었다. 희생자 인양이 더디고 유실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상실감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사고 해역 유실물 수색과 시신유실 방지 작업에 나선 어민들 마음도 바빠졌다.

진도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는 어민 54명은 이날 오전 9시경 대명 7호를 비롯한 어선 10척에 나눠 타고 고군면 회동 선착장을 출항했다. 회동 선착장은 ‘신비의 바닷길’로 잘 알려졌다. 전날까지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던 바다는 거칠게 치솟고 고요했다. 간간히 해무가 끼어 시야가 짧기도 했지만 낮부터는 먼 바다까지 육안으로 잘 들어왔다. 파고가 없으니 파란 푸른

바다를 가른 벋머리에서 하얀 포말이 부서져 기자와 함께 탄 어민들 얼굴에 툭툭 빗방울처럼 튀었다. 날씨가 좋을수록, 희생자 시신수습이 더딜수록 어민들의 부담은 커져만 갔다.

“우리(진도) 앞바다서 사고가 났으니까 우리(우리가)이 뭐라도 건져서 유족들 마음이라도 쫓아 달래 줘야 할 것인데...”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인 노인이 허를 끝까지 찌르며,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다.

선착장을 떠난 대명 7호는 고군면~의신면~임회면 등 3개 면(面) 해안을 지나 사자도와 독거도, 관매도, 병풍도 인근 해역을 살폈다. 사고 해역으로부터 70~80km 떨어진 곳에서 유실물이 발견됐다는 소

식을 접한 일부 어민들은 다급한 마음에 추라도 인근까지 배를 몰았다.

망원경도 없이 수색에 나선 어민들은 벋머리를 기준으로 1명씩 구역을 나눠 두 눈에만 의지한 채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쳐다봤다. 망망대해를 달릴때 10노트까지 속도를 올린 배는 김이나 굴 양식장 등 각종 양식장 주변을 지날때면 시동을 끄다 시피 속도를 늦췄다. 양식시설에 걸려 있을지 모를 시신이나 부유물을 꼼꼼히 살피기 위해서다.

보도로 수색이 불가능한 무인도 갯바위 주변에서도 배는 천천히 움직였다. 중간중간 신발이나 옷가지로 추정되는 물체가 눈에 들어 배를 돌려 가보면 때면 어업용 비닐이나 물병, 해조류 조각이었다. 그때마다 어민들 얼굴에는 허탈감과 미안함, 원망감이 교차했다.

“시신도 못찾는 유족들에게 유품이라도 건네야 할텐데... 이런 사고가 날때마다 벋사람들은 괜히 죄진 것 같아...”, “망원경이라도 빌려줬더라면 좀더 살살이 살피서 하나라도 건져 올릴텐데, 정부는 뭐하고 있는 건지...”

배 위에서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고 종일 수색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어민들은 날이 저물 즈음 무거운 마음을 안고 선착장으로 배를 돌렸다.

/진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화물 결박 허술...업체 직원 2명 조사

수사본부, 유병언씨 출석 통보

이준석 선장 살인죄 적용 검토

경경 합동수사본부는 13일 세월호 고박(결박) 업체인 우련통운 직원 문모(58)씨와 이모(50)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물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모서리를 고정하는 콘(cone)이 규격이 맞지 않았고 컨테이너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수사본부는 당시 화물 적재시 1단과 2단 컨테이너는 콘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거나 일부만 끼워졌고 일부는 로프를 구멍을 연결해 묶기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콘과 함께 화물을 연결하는 장치인 버클, 트윈스트라, 라싱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승용차, 화물차, 중장비, 컨테이너가 실려 있는 C데크와 D데크에는 콘이 전혀 없어 화물이 단순히

쌓여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본부는 아울러 구명장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로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53)씨와 이사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구명벌과 인명피해 관련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희종 2차장검사)도 이날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마저 특별한 이유없이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소환에 불응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서도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검찰이 승객에 대한 구조 조치 없이 탈출, 공분을 산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검찰, 해경 수사 본격화

감사원 강도높은 감사도

해경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허술한 초기 대응에다 무능함으로 비판을 받은 해경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와 함께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도 시작된다.

13일 해경에 따르면 감사원은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특정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단은 국토해양감사국 1과 21명 내외로 구성, 서해해경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전 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초동 대응 실태, 부실한 상황 전파, 대형 재난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조도 주민 뱃길 불편 개선

조도~쉬미항 정기 운항

세월호 참사 인접 도서인 진도 조도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여객선 항로가 변경되는 등 대책이 마련됐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13일 “조도면 주민들이 건의를 받아들여 진도~조도 사이 선박 운항 여건을 14일부터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팽목항을 드나들던 여객선은 팽목항 인근 임시 선착장을 이용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조도~팽목항을 운항하던 여객선의 항로를 변경, 조도~쉬미항 간 1일 2회 정기 운항을 결정하는 한편 팽목(임시 선착장)~조도 사이 화물선 1척을 추가 투입해 조위(潮位)에 따라 1일 2~3회 운항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용무가 급한 섬 주민을 위해 목포항만청 행정선이 1일 2~3회 운항(서방향~조도)에 나선다. /진도=박현영기자 hpark@



세월호 침몰 사고 28일째인 13일 진도 임회면 팽목항 방파제에서 한 실종자 가족이 눈물을 흘리자 수녀가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색 재개 시신 1구 수습...선체 칸막이 약화현상 우려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수색 재개 사흘만인 13일 사망자 시신 1구를 추가 수습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이날 낮 12시 40분부터 합동구조팀이 수중 수색을 진행 중이며, 시신 1구를 추가 수습해 현재 사망자는 276명, 실종자는 28명이라고 밝혔다.

합동구조팀은 기상 악화와 선내 일부 구역의 칸막이 약화 현상때문에 지난 10일 새벽부터 수중 수색을 중단했다가 3일만인 이날 새벽 0시 50분경 수색을 재개했다.

합동구조팀은 이날 새벽 잠수사 16명을 투입해 2시간여 동안 유도줄을 점검하고 3

층 선미 통로, 4층 선수 좌측 통로, 4층 선미 다인실, 5층 중앙 통로 등을 수색한 뒤 낮 정조시간에 다시 잠수사들을 투입했다.

대책본부는 또 일부 격실 부근에서 칸막이 약화현상이 더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 장애물과 선내 칸막이 약화 현상으로 접근이 어려운 4층 선미 좌측 다인실의 경우 개

조공사 관계자와 한국선급 관계자, 선박 전문가, 현장 잠수사들이 칸막이 해체 방법 등을 협의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전체 잠수 인력은 600여명이 넘지만 이중 수심 40m가 넘는 선체 좌측까지 진입할 수 있는 심해 잠수 인력은 소수”라며 “다른 잠수요원들도 선체 외부 및 유속 점검, 희생자를 수면 위로 올리는 작업을 돕는 일 등을 한다”고 설명했다.

/진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실종자 가족 위로는 못할 망정...성금 받아 가로챈 파렴치범



○...자신을 ‘장흥청 소년자원봉사센터 소속 직원’이라고 속여 세월호 참사 희생·실종자 가족들을 돕기 위한 국민 성금을 받아 가로챈 ‘파렴치범’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장흥경찰에 따르면 A(22)씨는 지난달 2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성금 모금 관련 질문 글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로 입금하라’는 답변과 자신의

은행 계좌 번호를 적어 한 차례에 걸쳐 국민 성금 1000원을 받아 가로챈다는 것.

○...A씨는 이를 이상히 여긴 포털사이트 측이 군에 직접 A씨의 이름 등을 확인하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A씨는 “가장 효과적으로 성금을 보내는 방법은 자치단체를 통한 길”이라는 내용의 글과 모금 계좌·기간·희생자 위로금까지 기재해 누리꾼을 속였다고 설명.

/장흥=김용기기자 · 중부취재본부장

15P - 13층

- 실평 - 9P
- 방향 - 무등산
- 대출 - 1200만원 안고 가능
- 임대 - 3백만원에 2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5천만원 정도
- 매매가 - 3400만원

29P - 12층, 15층

- 실평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53P - 13층, 사무실 적합, 전체 올수리

- 실평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보2천만원에 월8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500만원

경매투자

- ▶ 경매 특수비법
-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NPL과 특수물건만 입찰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개인지도, 3개월 완성
-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분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투자자 모심

2억원 이상, 2년정도